

▣ 정치개혁추진위원회 기자회견문 ▣

“영남에서 정치개혁 국민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남의 국민 여러분!

우리 노무현 대통령후보 정치개혁추진위원회는
오늘 정치개혁을 가로막아온
지역주의를 마감하기 위한 역사적 행보를 시작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영남에 내려왔습니다.

국민분열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국민통합으로 국운을 상승시켜
민족사에 길이 빛날 민족통일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국민통합의 위대한 기운이 영남에서 시작됩니다.

반세기 이어져온 민족 분열의 역사를 끝낼 국민통합의 노무현 후보가
영남에서 일어섰습니다.

영남에서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밀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국을 통합시킬 국민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젠 개혁세력이 나서서 새로운 정치주도세력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반년 전 국민통합후보에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셨던 영남의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넓고 부패한 정치행태의 만연 속에

영남의 국민들께서 가지셨을 실망과 좌절감을 우리 역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넓은 과거와 과감하게 결별하는 용기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저희 정치개혁추진위원회는 노무현 후보의 정치개혁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며 행동에 옮기는 기구입니다.

새로운 정치주도세력을 만들어 정치개혁의 실천에 매진하기 위해 우리 정치개혁추진위원회가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노무현이 당선되면 노무현의 정치가 펼쳐집니다.

약속드립니다.

노무현이 당선되면, 노무현의 정치가 펼쳐지며 정치개혁은 성공합니다.

오히려 지역주의에 기반한 거짓선동에 휘말려 영남의 국민들께서 외면하신다면 정치개혁은 후퇴하고 넓은 정치, 넓은 정치세력이 잔존하게 됩니다.

노무현식 정치를 대선에서부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발적 자원봉사운동으로 구태의연한 조직선거, 동원선거, 금권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돈 안 드는 선거, 투명한 선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11. 18. 노무현 후보와 우리 당은 전체 유권자를 대표한 2002 대선유권자연대와 “깨끗한 선거를 위한 정치자금 공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노무현 후보는 우리 선거사상 최초로
선거자금내역을 외부에 공개하고 외부실사까지 약속한
최초의 대통령후보가 되었습니다.

100만명 1만원 후원금 모금운동 등
깨끗한 정치자금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그 과정을 인터넷에 매일 공개하는
등 투명한 회계관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획기적인 정당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경선의 정신을 되살려 더 많은 국민에게 당을 개방하고,
국민참여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정치혁명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을 100% 당비를 내는 진성(眞性)당원의 정당으로 바꾸고,
당의 주요의사결정에 인터넷을 활용한 “全党원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부패, 국민통합, 국민참여 정치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 모든 국민과 함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치개혁의 큰 물결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2002. 11. 19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 노 무 현
정치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조 순 형